

한국 개신교전통의 경전읽기에 나타난 수행적 발화 : 종교의례로서 성경읽기의 비교종교학적 설명

유요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1. 서론: 비교종교학적 관점의 적용

한국의 개신교회는 19세기 말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이래 급속하게 성장해왔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사학자들은 ‘사경회’와 ‘부흥회’를 개신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한다(민경배 1993: 267; 김광수 1996: 293; 김인수 2002: 168). 최근 한국에서는 ‘사경회’와 ‘부흥회’를 다른 종류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로 종종 사용기도 한다(<「부흥사경회」와 ‘교회’> 참조). 그러나 현재도 사용되는 ‘부흥사경회’라는 좀더 포괄적인 용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양자는 원래 엄밀히 구별되는 집회가 아니었다.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사경회는 종종 “열광적, 폭발적, 영적, 비이성적” 성격의 오순절적 체험을 동반하는 부흥회의 기도와 공개적 회개로 이어지

주 제 어: 비교종교학, 한국 기독교, 한국 개신교, 경전 읽기, 수행적 발화, 의례 이론

comparative religion, Korean Protestantism, scripture reading, performative utterance, ritual theory

는 일이 많이 있었다. 성경공부에서 오순절적 체험으로 이어지는 집회가 신도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교세를 확대시켰다고 한다(이덕주 2001: 98-100, 134). 1903년부터 1907년까지의 소위 ‘대부흥(Great Revival)’ 기간 중 한국 개신교인의 수가 네 배로 증가한(Moffett 1962: 53) 배경으로 사경회의 공헌을 꼽곤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¹⁾

지금까지 사경회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단에 기반을 둔 신학교들에서 기독교 내부의 전형적인 고백적 언어를 이용하여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정도로 이루어졌다. 기독교에서 출간된 대부분의 책과 논문들은 사경회의 결과를 주로 다루어, 사경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불길’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마핏(Samuel Hugh Moffett)은 “대부흥의 배경에 사경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도 주로 그 결과를 기술(記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는 “[대부흥이] 20세기 첫 10년 동안 한국의 교회를 뒤흔들었던, 거의 화산의 폭발과 같이 엄청나게 뜨거운 대변동”이라고 정의하며, “[대부흥은] 한반도 전역을 휩쓸었던 폭발적이고 극적인 영적 부흥”이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존 웨슬리(John Wesley)의 부흥과 비견할 만한” 것으로, “한국에서 성령의 힘이 특별하게 나타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Moffett 1962: 52). 마핏의 경우처럼, 사경회와 연관된 대부분의 글들은 사경회 자체보다는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부흥’에 집중하여 이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묘사하고 그 성격을 기독교적 언어로 규정하는 데 집중한다.

한국 기독교사에서 사경회는 분명히 중요한 종교현상이지만, 종교학자들은 이를 연구의 주제로서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았다. 종교학은 종교 내부의 관점을 지양하면서도 자료에 대한 가치판단을 배제하려 노력하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종교현상을 이해하려고 추구하고, 따라서 종교인들의 신앙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

1) 따라서 여러 영어사전이나 교회사 서적 등에서 사경회를 ‘Bible class’나 ‘Bible study meeting’ 등으로 번역해온 것은 단순히 한자 ‘사(査)’와 ‘경(經)’을 풀어 읊긴 것으로, 그 본래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겠다.

는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사경회가 정말로 “성령의 체험”이나 회개운동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에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경회가 중요한 종교현상이라면 종교학자들은 마땅히 이에 주목해야 한다. 종교학 전통은 중요한 종교현상에 수반된 종교적 진술과 그 내용을 유형화하여 설명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왔다. 신자들이 사경회 등의 종교행위를 통해 종교경험을 했다는 고백과 주장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구조를 유형화하여 설명하는 작업은 한국의 종교학자가 풀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²⁾ 이 논문은 신자들이 성경읽기라는 종교행위를 통해 종교경험을 했다고 주장하고 인식하는 내용을 고찰하고, 그 주장과 인식의 구조를 설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의례가 힘을 발휘했다는 신자들의 신앙고백을 인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 목표가 아님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사경회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현상임에는 틀림 없으나, 그 전체적인 배경이나 여러 유형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학문적인 일반화와 설명을 도출해내는 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조나단 스미스(Jonathan Z. Smith)는 “현상들을 전부 혹은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들 중 하나의 양상적 특징만을 다루는” 비교종교연구의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J. Z. Smith 1990: 53). 이러한 방법은 비교 대상 사이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나열하고 정리하는 것 위주로 연구가 귀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론적 관심에 따라 자료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는 작업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사경회의 중심적인 부분인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의례의 효용성’으로 관심을 좁히고 이를 일반화하고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성경읽기 의례는 사경회의 일부이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인 의례이기도 하다. 현재도 ‘성경통독수련회’나 ‘성경통독집회’라는 성경읽기 의례에 많은 개신교인들이 참여하며, 개인적인 성경읽기도 여러 개신교인들 사이에 의례화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2) 조나단 스미스가 지적하듯이, 비교종교연구의 목적은 연구대상의 “설명”이며, 이를 그는 “재기술(redescription),” “이론화,” 그리고 “일반화”라고도 부른다(J. Z. Smith 2004: 29-32).

종교학자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Wilfred Cantwell Smith)의 통찰력도 본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그는 종교경전들이 신학교를 중심으로 각 교단 내부의 시각에서 연구되어온 전통에서 벗어나 인문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 경전이 각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였는지를 역사적 관점과 비교종교학의 관점에서 연구해야 한다(W. C. Smith 1989: 27-28). 각 종교 내부의 경전 연구가 고백적 언어로 이루어지는 반면 학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 윌프레드 스미스의 주장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사경회가 시작된 이래 한국의 개신교에 종교적 체험을 수반하는 공개적인 의례로서 성경을 낭독하는 전통이 수립되었으며, 신자들은 이 의례에서 발화된 말이 수행적(遂行的, performative)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점을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하여 사경회를 비롯한 성경읽기 의례는 개신교단 내부의 언어와 관점에서 기술되는 것에서 벗어나 학문적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종교현상으로서 다루어질 수 있다.

또한 경전의 ‘읽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교의례를 연구함으로써 지금까지 경전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조명할 수 있다. 윌리엄 그레함(William Graham)이 말했듯이, 비록 “구술되는 경전의 언어는 모든 시대의 종교적인 사람이나 집단이 경전의 텍스트를 알고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매개체였으나,” 성경 등의 “종교 경전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경전이 구술되는 측면들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다”(Graham 1987: 155, 157-9). 특히 성경의 내용을 가장 중시하는 개신교의 학자들은 성경의 구술적 기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성경을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읽는 의례에 대한 연구는 성경의 구술적 사용을 주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본 논문은 한국 개신교사에 명백히 나타나는 성경의 수행적 차원과 관련된 역사적 맥락에 대한 분석과 이론적 설명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성경읽기가 한국인들의 종교경험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한국 문화의 맥락 내에서 ‘읽기’가 가진 의미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이겠다. 한국의

기독교는 주로 선교사에 의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었으나, 성경읽기를 통해 많은 한국인들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용이해졌으며, 이는 기독교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다음으로, 경전 읽기의 ‘수행적 차원’과 그 의미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이어진다. J. L. 오스틴(J. L. Austin)의 ‘수행적 발화(performative utterance)’ 이론과 로이 라파포트(Roy Rappaport) 등의 의례 이론을 사용하여 개신교의 성경읽기 의례를 설명할 것이다. 특히 성경읽기 의례에 사용되는 발화의 구조가 일반적인 수행적 발화의 구조와 어떤 경우에 동일하며 어떤 경우에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할 것이다.

2. 성경읽기 의례의 효용과 ‘읽기’의 한국적 맥락

2.1. 사경회와 종교적 체험

사경회의 형식, 내용, 결과 등을 증언하는 1차 자료가 거의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초기 기독교 당시의 기록 중 선교사들의 보고서 외에도, 《그리스도신문》(1898~1902), 《예수교회보》(1912~1914), 《기독신보》(1916~1918) 등 기독교계의 신문이 발간되었으나, 대부분 사경회가 언제 어디서 열릴 것인지를 공고하는 기사와 어떤 지역교회의 사경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는지를 간략히 소개하는 기사들이 주로 등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일부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언급되는 내용과 교회사학자들이 단편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적 맥락을 추적하는 데 만족하고, 추후의 연구에서 1차 자료를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한국의 개신교 교파마다 사경회의 유래와 역사를 약간씩 다르게 설명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사 연구자들은 사경회가 1888년 스크랜튼(William B. Scranton) 선교사와 1892년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에 의해 시작된 성경교육 프로그램에서 발전된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부흥사경회〉

와 ‘교회’ > ; 민경배 1993: 267). 성경교육을 위한 비정규적 모임이 1890년 대 중반부터는 해마다 또는 격년으로 열리는 정규적인 행사로 형식이 갖추어졌다. 다시 말해 사경회가 정규화되면서 점차 한국 개신교회의 핵심적이고 특징적인 의례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1905년의 □□한국 선교사 보고서 Korean Mission Field□□는 당시 한국 개신교 신자의 60% 정도가 사경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기록했다. 1909년까지 미국장로교단의 선교 구역에서만 800건 이상의 사경회가 개최되었다(김광수 1996: 293).³⁾ 교회사학자들에 따르면, 행사의 규모는 다양했다. 작은 지역교회에서는 다섯 명 정도의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던 반면, 대도시의 유명 교회에서는 600명의 신자들이 주변지역에서 몰려들었다. 사경회는 대개 농한기인 겨울에 열렸으며, 7일에서 10일 가량 계속되었다. 원거리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은 취사도 구와 음식 재료를 들고 와서 교회 건물에 묵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다행히 교회 근처에 친척이 있으면 거기에 머무르기도 했다(S. F. Moore 1906; 김광수 1996: 293).

한국교회사를 다루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사경회가 강렬한 종교경험으로 이어졌다고 증언한다. 교회사 연구자들뿐 아니라 당시의 증인들도 “부흥운동은 원산에서 열렸던 한 사경회에서 시작”되었으며(□□새문안교회70년사□□ 1958: 43),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평안도사경회가 대부흥의 정점을 이룬다고 증언한다(김인수 2002: 246). “부흥의 물결”이 “사경회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거나(민경배 1993: 267), “집회를 통한 성령의 체험과 영력(靈力)을 얻는 계기로 발전하여 초기 부흥운동의 기틀”이 되었다(김광수 1996: 293)는 식의 기술은 교회사 연구자들이 사경회의 영향력에 대하여 언급하는 전형적인 내용이다.

3) 한국에 개신교가 전래될 무렵, 미국장로회, 호주장로회, 캐나다장로회, 미국감리교 등의 몇몇 서양 국가들의 개신교 교파들이 한국의 선교 구역을 나누고 담당 지역의 선교를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1900년 경의 선교 구역 지도를 보려면 http://www.kukminilbo.co.kr/missiontoday/c_history/root/roottxt14.html (2007. 12. 20)을 참조할 것.

대부분의 한국 초기기독교 자료들은 사경회를 통하여 신자들이 종교경험을 하게 되는 과정이 대개 신성의 거룩함과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기록한다. 마뫼에 따르면, 대부흥의 시작은 캐나다 출신의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디(R. A. Hardie)가 원산의 성경공부모임을 지도하던 중 성령의 감화를 받아 죄를 회개하는 데서 시작된다. 먼저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자만, 강박함, 믿음의 부족” 등을 고백하고, 얼마 뒤 한국인 신도들 앞에서도 같은 회개의 고백을 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Moffett 1962: 52-53). 이 당시 한국 기독교에는 죄의 고백이 성령이 역사하는 징표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으며(한국기독교의 역사 1989: 268-273),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사경회 참석자들은 그러한 고백을 듣고 자신의 신앙이 강화되고 있음을 느꼈고, 모임에 초청되었던 비 기독교도들 중에 개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한다. 1900년대의 소위 대부흥과 급속한 교세의 확장이 사경회와 관련되었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S. F. Moore 1906).⁴⁾

요약하자면, 사경회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모임으로 시작하여 정규적이고 공식적인 행사의 성격을 지닌 종교의례가 되었고, 많은 신자들이 이를 통해 강렬한 종교적 체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성경읽기가 ‘성경공부’의 중심을 이루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 효과가 발휘되는 구조를 설명하겠다.

4) 몇몇 교회사학자들과 보수적 교단 소속의 신자들은 사경회에서 성경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성경공부의 과정과 오순절 운동 방식의 “성령체험”을 구별하여, 1960년대 이후 부흥운동에서 “성경 중심”이 상실된 것을 비판한다(〈「부흥사경회」와 ‘교회’〉). 그러나 위에 언급한 민경배, 김인수, 마뫼, S. F. 무어 등과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한 것이 강렬한 종교경험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성경 중심”의 전통이 오순절 운동 형식으로 바뀐 것을 지적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며 강력한 체험을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도 있다(김광수 1996: 293).

2.2. 큰 소리로 읽는 의례로서 성경공부

당시 한국에서 성경공부는 종종 성경을 소리 내어 읽는 행위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었으며, 단순히 읽기만 하는 행위로도 강력한 종교적 체험이 따르는 종교의례를 구성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사용된 ‘사경’ 즉 ‘성경공부’라는 말은 현재 흔히 사용되는 ‘공부’의 의미와 달랐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성경공부’는 경전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뿐 아니라 경전을 읽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초기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사경회를 통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을 기대했다(김광수 1996: 293). 소규모의 사경회는 집회 내내 거의 성경을 읽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대규모 사경회에는 기도, 찬송, 성서 강해, 전도 훈련 등의 다양한 과정이 포함되었으나 여기서도 성경읽기가 중심이었다. 먼저 낭독 담당자가 성경 중에서 미리 채택한 책을 소리 내어 읽거나 암송한 다음에 초빙된 목사나 강사가 본문에 대하여 해석하고 설명했다. 이 때 성경 낭독자가 앞서 읽은 구절을 회중이 소리 내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따라 읽는 형태와, 낭독자가 읽는 것을 들으며 눈으로만 읽는 형태로 성경읽기의 종류가 나뉜다. 서울 승동교회의 담임목사였던 무어(S. F. Moore)는 1906년 1월에 서울에서 연속적으로 개최된 사경회가 회중들이 소리 내어 따라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한다. “[이 때 열린] 사경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회중들이 성경을 따라 읽는 것이었다. 먼저 인도하는 사람이 많은 귀중한 본문들을 읽으면 회중들이 따라 읽었다”(S. F. Moore 1906). 구약보다는 신약성경이 더 자주 읽혔고, 특히 4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서들, 요한의 서신서들 등이 널리 읽혔다(김광수 1996: 293; 김인수 2002: 247).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에는 미국 등지에서 온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의 기독교인을 교육하려는 목적으로 사경회 개최를 주도하고 진행했다. 그러나 곧 한국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사경회 개최에 참여했고, 한국인 목사가 생기고 목회를 맡게 된 이후에는 그들이 사경회의 진행도 맡게 되었다. 이 모임의 주도층은 달라졌으나, 모임의 중심인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부분은 그대로 남았다. 특히 전문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지방의 작은 교회 단위의 소규모 사경회에서는 유명 강사의 강해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성경을 공부하러 모여서 성경을 소리 내어 읽었다.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한국인 평신도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경(성경공부) 모임이 성경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본다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소리 내어 성경을 읽는 행위가 의례적 맥락의 성경공부로 인정되는 데 기여한 두 가지 배경요소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한국 개신교 선교에 중심 원칙의 역할을 했으며 한국 개신교회의 성장에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는(김인수 2002: 193) ‘네비우스 선교방법(the Nevius Method Mission Work)’과 그 영향으로 성장한 한국인 평신도지도자들이다. 40년간 중국 선교사로 일했던 존 네비우스(John L. Nevius, 1829-93)는 1893년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선교방법과 전략에 대한 강의 및 세미나를 주도한다. 세미나가 끝난 후 그와 다른 한국 거주 선교사들은 ‘성경공부, 한국인 스스로의 전도, 한국인의 자치, 자급, 선교사의 순회 설교’를 주요 5대 원칙으로 하는 ‘네비우스 선교방법’을 발표한다(Clark 1930; Moffett 1962: 59-61). 이 방법은 성경이 선교사업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자원봉사 체제’를 강조하여 모든 한국인 기독교 신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성경 교사가 될 것을 장려한다. 구체적으로는, 급여를 받지 않는 한국인 ‘조사(助事, helper)’와 ‘평신도지도자’가 먼저 성경공부반(Bible classes)에서 선교사나 목사로부터 배운 다음에 다른 한국인 신자들을 가르치도록 했다.⁵⁾ 또한 각

5) 이들 한국인 평신도지도자들은 한국 개신교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예를 들면, 대부흥 시기인 1907년에 평양 노회의 서부구역을 담임했던 무어(J. Z. Moore) 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무급으로 일하는 조사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면 올해의 사역보고는 전혀 완성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작년의 성공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평신도들의 충성되고 열정적인 사역이 없었다면 올해 보고서의 여러 장은 기록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직분을 받지 않았고 급료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다”(J. Z. Moore

교회들이 이러한 평신도지도자들이 이끄는 소규모 성경공부반(사경반)을 조직하도록 권장했다. 지역교회들의 성경공부반을 통해 한국 개신교도들의 성경을 공부하려는 열망이 커졌으며 사경회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김광수 1996: 293). 그러나 평신도들이 성경 내용을 자세히 가르치고 설명할 정도로 훈련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함께 읽는 것을 중심으로 성경공부가 진행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둘째, 이덕주는 성경의 낭독이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적 행위들과 연속성을 지녔다는 점을 지적한다. 유교의 경전을 소리 내어 읽고 불경을 소리 내어 암송하는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경전을 공부하는 방식은 본문을 소리 내어 죽 읽어 내려가고 그것을 암송하는 것을 포함했다. 성경의 낭독이 성경공부가 되고 나아가 정규적이고 공식적인 종교의례로 자리잡는 데에는 한국 사람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이런 요소의 영향이 있었다. 이덕주는 읽고 암송하는 것이 성경공부의 주요 방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외에도 새벽기도회, 사경회 등이 부흥운동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것들은 모두가 한국적 상황 속에서 창출된 토착적 신앙행위들이었다[...] 사경회도 종래 동양의 경전 연구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성서를 그냥 죽죽 내려 읽어가는 것으로 공부가 시작되었고 해석보다는 읽음에 그 의미를 두었던 것이다. (이덕주 1995: 509: 저자의 강조)

초기 한국 개신교인들이 성경의 본문을 소리 내어 읽는 행위와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의례를 ‘공부’라고 부른 것은 전통적인 방식의 경전 공부와 연속선 상에 있다는 이덕주의 주장은 당시 서당 등의 공부 방식을 고려하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성경읽기는 한국의 전통적 종교문화의 연장선에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개신교가 한국의 문화에 좀더 용이하게 흡수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했던 것

1907).

으로 보인다.⁶⁾ 더 오래된 전통적 방식을 기독교의 중요 의례에 적용함으로써, 새로 도입된 종교에서 선교사들이 아니라 한국인 개종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가 중요한 요소였다는 분석은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한다. 부흥사경회 등에 강사로 초청된 외국 출신의 목사가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여 통역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목사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한국인 회중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서양인 선교사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면 집회에 참여한 한국인들은 열렬한 반응을 했다(이덕주 2001: 92, 109). 한국 개신교에서 사용되던 성경이 한글로 기록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성경의 해석, 주석, 설교를 비롯한 수사적 표현 등 본문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외국 출신의 선교사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어로 된 성경을 정확히 읽는 의례에는 한국인들이 더 우월한 능력을 지닌 것이 당연하다. 자원하여 일하던 조사들과 평신도지도자들을 포함하는 토착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경읽기 의례를 통해 새로 들어온 개신교가 한국에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공식적인 의례에서 성경을 읽는 행위가 중심이 되는 한국적 맥락의 사경회에서는 해석 등을 위한 전문지식보다 오히려 한국어로 된 성경을 읽는 능력이 더 절실히 요청되었던 것이다.

3. 의례 언어와 경전의 의례화가 지닌 수행적 힘

왓츠(James W. Watts)는 종교의 경전에는 원문적 차원(textual dimension), 수행적 차원(performative dimension), 성상적 차원(iconic dimension: 경전 자체가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는 차원)이 있으며 종교공동체들은 이 세 차원

6) 개신교가 한국어 성서를 사용하고 모든 종교의례를 한국어로 집행했던 반면 로마 가톨릭교회는 라틴어로 미사를 진행했던 사실이, 한 세기 먼저 유입된 가톨릭보다 개신교의 성장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를 고찰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에 의거하여 경전을 의례화한다고 주장한다(Watts 2007). 앞에서 지적했듯이, 많은 기독교인들은 의례적 맥락의 성경읽기가 한국의 초기 개신교가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왓츠의 표현을 빌어 말하자면, 초기 한국개신교의 사경회 등 성경읽기를 중심으로 하는 집회, 더 넓게 말하면 성경읽기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의례는 당시 한국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전의 수행적 차원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발화된 말이 어떤 일을 수행한다는 개념은 오스틴이 말하는 “수행적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면 좀더 분명해진다. 오스틴에 따르면, “[...] 어떤 문장을 발화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환경에서) 내가 그렇게 발화할 때 내가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음을 기술(記述)하거나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장을 발화하는 것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Austin 1962: 6: 저자의 강조). 경전을 소리 내서 읽어 그 내용이 발화되고 발화된 내용이 이루어지는 현상은 신비한 종교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오스틴의 말대로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달리 말해 수행적 발화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면, 여러 의례적 선언에서는 물론 일상 언어에서도 이러한 수행적 발화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성경을 읽는 행위는 물론 성경 자체가 의례화됨으로써 오스틴이 정리하는 “수행적 발화의 필요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보이겠다.

그러나 기존의 수행이론을 한국의 자료에 적용하는 것으로는 복잡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많은 경우 한국 개신교의 의례적 성경읽기는 읽은 내용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결과를 수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말을 통해 어떤 결과가 수행되기를 기대하고 이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수행적 발화라고 할 수는 있으나, 오스틴이 말하는 발화와는 다른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비교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말이 중심이 되는 의례들 중, 참여자들이 의례에서 발화된 말의 내용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찾아 비교함으로써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한국의 의례적 성경읽기를 아프리카 치병의례에서 발화되는 언어와 비교하도록 하겠다.

3.1. 수행적 발화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전읽기의 ‘의례화(ritualization)’
와 수행적 힘: 발화 내용과 뒤따르는 결과가 직접 연결되는 구조

앞에서 다룬 사경회의 두 특징, 즉 대부흥의 주요 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그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과, 성경을 단순히 죽죽 읽어 내려가는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의례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연결시켜보자. 그러면 소리 내서 읽는 종교행위가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기독교사 책에 따르면, 평양 사경회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린도전서 12:27)는 구절이 낭독되었을 때, 참여자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은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했으며, 자신들이 예수의 몸을 함께 이루게 되었다고 믿었다. 성경의 이야기를 소리 내서 읽을 때도 신앙의 향상과 기독교의 부흥이 유발되기도 했다. 한국 개신교인들이 예수가 오천 명을 먹였다는 기적에 대해 읽고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의 사랑과 권능에 놀라고 예수를 더 의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초기 한국 개신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는 구절을 읽고 들을 때,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사랑할 것을 결심하며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였다. 지금도 성경읽기 의례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증언한다.⁷⁾

성경읽기의 효능을 인정하는 개신교인들은 성경의 내용이 감화력이 있기 때문일 뿐 아니라 성경 자체가 성스러운 힘과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효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이미 한국의 기독교 초기에 교리로 정립되어 인정되었다. 1916년 7월 12일자 <기독신보>에는 다음과 같은 교리교육 기사가 실려 있다.

7) 온라인 상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간증”을 많이 찾을 수 있다. 뒤에서 언급될 성경통독수련회에 참가한 후 자신의 변화를 간증하는 예로,
<http://www.samduk.or.kr/worship/confession/content.asp?id=14>나
http://seoulchurch.or.kr/2008/sub01_11.htm?read_no=2375 (2008. 5. 30 발췌) 등을 참조할 것.

성경책과 같이 세력이 있는 글을 하나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성경이 발행하며 발전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신자나 불신자 간에 노소를 무론하고 감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줄을 알 지며, 또 말할진대 모든 문명한 나라에 법률로 말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많으니라. 어느 나라이나 어느 사회상이나 개인상의 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흥망성쇠 할 줄 곧 알지니라.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지경이면 여덟 가지 감화하는 권능이 있나니...] (저자의 강조)

성경이 “세력”이 있으며 “발행”하며 “발전”하고, “감화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감화하는 권능”을 지니고 있다는 표현을 보면, 성경 자체가 하나의 인격처럼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신자들의 고백이다. 성경읽기 의례도 발화되는 말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말이 수행적 결과를 수반하는 수많은 다른 발화의 구조와 종교적 의례가 신자들에게 힘을 발휘하는 구조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경전을 읽거나 암송하는 행위가 수행적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읽는 행위’의 의례화’와 ‘경전의 의례화’라는 이중적인 ‘의례화’ 과정을 통해서이다. 수행적 발화가 “적합한 환경” 하에서만 제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오스틴의 유형을 한국 개신교의 의례적 경전읽기에 적용하면, 의례화 과정을 통해 경전읽기의 발화가 수행적 힘을 얻는 조건이 충족되는 과정이 분명해진다. 오스틴에 따르면 어떤 발화는 “필요조건” 아래에서만 수행적 힘을 발휘한다 (Austin 1962: 13-14). 한국 개신교의 성경읽기 의례에서는 오스틴이 말하는 “수행적 발화의 원활한 혹은 만족스러운 기능의 수행을 위한(for the smooth or ‘happy’ functioning of a performative)” 필요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

오스틴이 말하는 첫 번째 필요조건은 사람들에게 수용된 관습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Austin 1962: 14). 한국에서 사경회가 개별 개신교회, 노회, 혹은 교단의 연례적인 공식 의례였다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한국 개신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수용된 의례인 사경회

의 중심적인 부분이었다. “각각의 경우에서 특별한 사람과 환경이 특별한 절차가 시행되기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 수행적 언어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오스틴의 두 번째 조건이다. 사경회를 진행한 사람들은 유명한 목사들이나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지명한 평신도지도자였다는 점에서, 성경의 내용을 발화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었고, 농한기 등의 특정한 시기에 신년의례의 형태로 진행된 사경회는 수행적 발화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했다. 셋째 조건은 모든 참여자들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절차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초기 개신교인들은 경전을 읽는 것이 성스러운 말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하다는 데 동의했다. 사경회는 일종의 특별한 예배이자 공식적인 의례였으며, 따라서 엄밀한 절차의 실행은 중요했다. 대부분의 독실한 초기 개신교인들이 성경의 “축자적 영감설(verbal inspiration)”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 또는 미리 정해 놓은 특정한 부분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읽거나 암송하는 것은 공적이고 의례적인 맥락의 성경읽기에서 필수적이었다.⁸⁾ 오스틴이 말하는 네 번째 조건은 참여자들 스스로가 발화에 이어지는 행위를 실행할 의도를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Austin 1962: 15).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할 의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성

8) 최근 많은 개신교인들이 참가하는 ‘성경통독수련회’에서도 이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성경통독수련회는 대개 4일에서 7일 정도의 일정으로 열리며, 이 기간 동안 성경을 읽는 것에 집중하는 집회이다. 이 집회는 소위 성경의 내용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목적으로도 시행되지만, 성경 전체를 그냥 죽죽 읽음으로써 의례적인 성경읽기의 수행적 힘을 기대하는 면도 분명히 드러난다. 최근의 여러 ‘성경통독수련회’에서는 일반 참여자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 읽도록 하는 집회에서도 정확한 발음으로 녹음된 테이프나 CD를 틀어놓고 그 소리를 따라서 성경 전체를 한 번 다 읽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며칠 동안 계속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다 보면 피로와 집중력 저하 등의 이유로 정확하지 못하게 읽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정확한 녹음을 따라 읽도록 하는 것이다. <http://www.3927ok.com/index2.htm> (2007. 12. 27. 발췌). 이외에도 성경통독에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가 읽으면 강렬한 종교적 체험이 잘 발생하는데, 그의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 녹음을 했다는 기록도 있다. http://www.ezrahouse.org/tape/cd_desc_07a.htm (2007. 12. 27. 발췌) 참조.

경읽기 집회 참여자들의 주축을 이룬다. 이들은 발화된 경전에 따라 행동하려고 의도하며 실제로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공식적인 의례가 다른 환경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신자들이 경전을 읽는 것이 수행적 발화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수는 있다. 신실한 신자들은 종교의 경전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신자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신문을 읽는 것과는 다른, 의미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동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캐서린 벨(Catherine Bell)이 말한 것처럼, 성경을 성스러운 텍스트로 인정하는 신자들의 성경읽기는 “의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Bell 1992: 92; Bell 1997: 138-39). 게다가 성경의 종교적 권위 자체가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읽는 행동의 의례화를 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벨이 주장하듯이, “의례화는 당연한 상황을 넘어선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여겨지는 힘의 권위를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는 행위의 방식이다”(Bell 1997: 82). 그러나 수행적 발화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필요조건은 경전을 읽는 행위가 더 분명하게 의례화되는 종교의례적인 맥락의 성경읽기에서 더 확실히 충족된다.

한국 초기 개신교의 성경읽기에 나타나는 수행적 발화를 이해하려면, 오스틴이 말하는 언어의 수행적 힘뿐 아니라 의례 자체의 수행적 힘도 고려해야 한다. 종교학자들은 이 사실을 잘 인식해왔다. 예를 들어, 니니안 스마트(Ninian Smart)는 의례가 종교에서 중요한 이유는 말과 몸짓처럼 수행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Smart 2000: 117). 벨을 비롯한 의례이론가들은 “의례가 문화적 형태를 표현할 뿐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포함한다”고 강조한다 (Bell 1997: 82).

특히 로이 라파포트는 의례의 수행적 힘을 좀더 분명히 조명한다. 그는 의례가 참여자들에게 상징적 의미를 알려주며, 나아가 참여자들과 (또는) 그들의 주변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두 가지 면에서 창조적 기능을 지닌다고 주장한다(Rappaport 1999: 109-114). 참여자와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가장 쉬운 예는 기사작위수여 의식이다. 작위수여는 어떤 사람이 기사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그가 어떻게 기사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아

니다. 오히려 작위수여 의식은 “그 사람을 기사로 만든다.” 오스틴을 따라 라파포트도 이 힘을 의례의 “수행적 (performative)” 힘이라고 부른다. 의례를 수행하는 것은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것이다”(Rappaport 1999: 125). 이것은 의례가 신화나 교의에 내재하는 상징적 의미를 표상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그 의미들과 직접 연관을 맺도록 배치하는 것으로 인해 가능하다. 참여자들은 의례를 통해 행위의 규범적 질서 속에서 자신을 표시하고 나타내며(index) 그 질서를 구성한다(Rappaport 1999: 15, 54-58 참조).

한국 개신교의 성경읽기 의례에서는 읽히는 (즉 발화되는) 말이 읽는 행위와 성경 자체를 의례화하여 수행적 힘을 얻게 되었다. 라파포트의 용어를 빌자면, 의례는 참여자들이 텍스트에 의해 직접 말을 듣도록 지시했다(indexed). 또한 많은 참여자들은 새로 전래된 종교에 헌신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수용하는, 즉 그 의미와 직접 연관을 맺는 반응을 보였다. 사경회에서 공적인 죄의 회개를 한 사건들은, 참여자들이 신실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사경회의 지시적(indexical) 기능의 유형을 나타낸다. 말이 의례에서 발화되고 따라서 의례화되기 때문에 경전의 언어가 수행적인 힘을 얻게 된다. 사경회에서 사용된 의례화된 말은 의례의 도움으로 수행적 힘을 획득한 것이다. 성스럽다고 생각되는 경전은 읽는 것에 의해 두려움과 떨림의 종교적 체험을 일으킨다. 읽을 때 나타나는 성경의 힘은, 무엇보다도 사경회라는 의례적 맥락의 낭독을 통해 강렬한 종교경험을 수반하는 힘이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3.3. 발화 내용과 뒤따르는 결과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구조

오스틴이 수행적 발화의 사례로 제시하는 말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만, 성경읽기 의례에는 그렇지 않은 수행적 발화의 구조도 나타난다. 성경읽기를 통해 본문의 내용과 상관 없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종교경험에 대한 많은 기독교인들의 증언은 발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수행적 발화의 일반적 구조와 맞지 않는다. 수행적 발화의 언어가 수행하는 행위와 내용상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좀더 분명히 보이기 위하여, ‘성경통독수련회’의 사례를 검토해 보겠다. 다음에 인용하는 내용은 어떤 교회에서 성경통독을 중심으로 하는 신년 수련회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번 예수대축제의 성경읽기 훈련은 3박 4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3박 4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신구약 성경을 완독하는 중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위력과 함께, 생애 단 한번 맛보지 못한 기쁨과 환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요1:1)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 예수대축제에서는 좋은 강사님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강사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성경을 1독하는 것과는 분명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1독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세상에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1독하신 분들의 간증과 체험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뜨거운 감격과 기쁨을 통해 새로워지는 체험을 합니다. (시119:74)
- 말씀의 맛이 “꿀송이” 보다 달아집니다. (시119:103)
- 영육의 질병을 치료받습니다. (히4:12,13)
- 우둔한 머리가 천재로 바뀝니다. (시119:98~100)
- 2004년도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시103:5)

[...]지금부터 준비하여 참석하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말씀통독집회는 여러분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아침은 금식하고 밤 12시까지 성경통독은 진행됩니다.9)

9) http://mid.or.kr/board/list_detail.asp?board=freeboard&no=109&step=0&reno=0&nowpage=26
(2007. 12. 8. 발췌) 대부분의 성경통독수련회에 대한 광고들이 성경의 수행적 차원

위의 인용 부분에서 성경 자체의 신성한 의미를 강조하고 새해 첫날의 의미를 성경통독 집회의 의례적 중요성과 연관시키는 내용도 종교학자의 눈길을 끈다. 그러나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성경을 통독했다는 사람들이 한 “간증과 체험”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저 성경 전체를 읽는 모임에 참여했더니 기독교의 종교적 체험을 잘 하게 되고, “영육의 질병”을 치료받으며, 머리가 좋아지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¹⁰⁾ 성경의 본문이 성경을 읽는 의례에 참여함으로써 실현된다는 주장과, 성경 전체를 읽는 의례가 특정한 본문의 내용을 넘어서는 어떤 ‘일을 수행한다’는 주장은 오스틴이 제시하는 것과는 분명히 구조가 다른 수행적 발화이다.

말의 내용이 직접 그 결과라고 주장되는 상황과 직접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화가 수행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말을 발화하여 의례의 결과를 얻는 아프리카 치병의례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이 논문은 성경읽기의 의례라는 종교현상을 종교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읽기와는 다른 맥락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사례와의 비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성경읽기를 성경읽기라는 역사적 현상으로서만 연구하면 조

을 언급하지만, 어떤 교회에서 광고로 사용한 이 내용은 다른 것들보다 성경의 수행적 차원을 더 뚜렷이 강조하며, 본 논문의 논점을 위해 중요한 점을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인용했다. 이와 유사한 체험담을 “간증”하는 내용은 성경통독집회에 참여한 개신교 신자의 개인 블로그인 <http://blog.ohmynews.com/pretty645/131062> (2008. 5. 30 발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은 종교적 체험과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이 논문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한다. 여기서 성경을 그저 읽는 것에 의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신자들의 주장은 성경읽기의 수행적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수준의 의미만 있는 것이다.

10) 성경을 곧 하나님으로 표현하여 신성시한다는 점에서 왓츠가 말하는 성경의 성상적 측면(iconic dimension)의 요소도 나타난다. 또한 참여자가 성경읽기의 결과로 얻게 된다는 체험과 ‘기적’들의 근거로 성경의 본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성경의 원문적 차원(textual dimensions)도 나타난다. 그러나 성경의 신성한 능력은 그것을 읽음으로써 발휘된다는 점에서 수행적 차원이 더 강조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나단 스미스가 비판하는 “말 바꾸기(paraphrase)”의 수준에만 머무르게 된다 (J. Z. Smith 2004: 31).

레이(B. C. Ray)는 자신의 논문 “Discourse about Difference: Understanding African Ritual Language”에서 두 인류학자 에디스 터너(Edith Turner)와 폴 스톨러(Paul Stoller)의 현지조사방법에 근거한 인류학적 연구를 비교한다. 레이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의례 언어에 나타나는 “수행적 힘(performative force)”에 대한 이 두 사람의 연구는 “어떻게 의례의 언어가 사람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도록 만드는지”를 보여준다(Ray 2000, 102).¹¹⁾ 터너는 은템부(Ndembu) 마을의 이함바(ihamba) 치병의례를, 스톨러는 니제르(Niger)의 송하이(Songhay) 부족 주술사의 치병의례를 다룬다. 에디스 터너의 남편 빅터 터너(Victor Turner)는 은템부 부족민들의 치병의례에는 우주론이 포함된 이야기가 낭송되지 않으며 신화 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Turner 1969: 14). 소위 ‘고대종교’나 ‘원시종교’에서 신화가 포함된 이야기, 특히 우주론적 신화가 치병의례 시 암송된다고 종종 보고되는 것을 고려하면(Eliade 1957: 80-85), 은템부 부족의 경우는 발화의 의례적 효과와 큰 연관성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에디스 터너는 이함바 치병의례도 참여자들에게 효능을 발휘하는 발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함바 치병의례에서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원함과 분노의 감정을 참여자 서로와 환자를 향해 큰 소리를 질러 표현하는 것과 환자 역시 자신의 분노와 적개심을 계속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참여자들의 말은 의례 과정에서 활동적인 매개체로 간주되어 치병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 북을 치고 노래하고 춤추는 활동과 더불어 말을 계속 발화하면서 “일종의 집단적인 오순절적 경험”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환자의 병이 치유된 것이라고 믿게 된다(Ray 2000: 108).

11) 레이는 Paul Stoller and Cheryl Olkes, *In Sorcery's Shadow: A Memoir of Apprenticeship among the Songhay of Ni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과 Edith Turner, *Experiencing Ritual: A New Interpretation of African Healing*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2)의 두 연구서를 참조하였다.

은템부 부족과는 대조적으로, 스톨러가 묘사하는 송해이 부족은 치병의례에서 신화적 경전을 구술하는 주술사에게 의존한다. 그는 치병에 사용하는 신화를 세 차례 암송하면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손에 받는 동작을 하고, 이를 암송하는 중간중간 나뭇가지와 향료가 섞인 물을 담은 호리병에 그 말을 넣는 듯한 행동을 한다. 암송되는 신화는 송해이 조상들의 힘과 주술의 세계를 다루는 우주론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신화는 송해이의 우주에서 지고신의 위치에 있는 이리 코이(Iri Koy)와 인간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하는 신이라는 은데비(Ndebbi)에게 바쳐진다. 암송이 끝나면 이제 하늘의 힘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호리병의 물로 환자의 몸을 닦아준다. 이들은 이 치병의례를 통해 환자가 잃어버린 생명(生靈)이 다시 몸으로 돌아온다고 믿는다. 주술사가 환자의 병이 치료된 것을 확인한 후 “말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술의 효능은 말의 힘에 근거한 것이다(Ray 2000: 113).

은템부 부족이 전해진 경전이나 대본 없이 즉석에서 발화하는 의례 언어는 송해이 부족이 사용하는 규정된 의례 형태의 전통 신화와는 분명히 다르다. 은템부 부족의 치병의례에서 발화되는 말들은 북을 치며 춤을 추는 행위와 더불어 집단적으로 이야기되며, 화나는 일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범위가 분명히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의례에서 지시되는 내용과 상관 없이 자신들의 화난 심경을 토로하는 내용이며, 발화하는 사람마다 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즉각적인 것이다. 반면 송해이 주술사는 고정된 형태로 전해진 전통적 신화를 사용하며, 이 신화를 암송하는 것이 곧 치료약이 된다. 그러나 이 두 의례들은 의례적 언어 자체가 치료의 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유사점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레이의 평가에 따르면, “터너는 의례 언어의 수행적 힘과, 사람들의 감정을 재배치하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이 발생하도록 하는 심리적인 힘을 지배하는 의례 언어의 능력을 우리에게 성공적으로 보여준다”(Ray 2000: 110). 또한,

스톨러의 설명은, 은템부 부족의 의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례의 효용성

이 성스러운 말들을 영의 세계와 환자의 심리적 상태와 서로 연결시키는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들을 발하는 것은 환자와 그의 생령(生靈)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기대했던 효과를 낳았다[...] 두 경우 모두에서 말의 수행적 힘은 고통스러워하는 환자 내부에서 변화를 야기했던 것이다(Ray 2000: 113, 강조를 덧붙임).

레이는 두 인류학자들이 증언하는 치병의례가 말의 수행적 힘에 의존한다고 평가하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말의 힘, 즉 “오스틴이 수행문, 혹은 ‘발어매개적 문장’이라고 부른 것”이 이러한 의례들에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2000: 114). 아프리카 주술사들의 말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레이의 설명은 두 단계의 수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위의 사례들에서 말의 수행적 힘이 작용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자들의 종교경험에 대한 고백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가 “적어도 의례 참여자들의 믿음과 인식 속에서는 수행적 발화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공동체의 의례가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효과를 얻는 과정은, 분명히 말이 작용하여 어떤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따라서 “신자들이 말의 수행적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분명한 사실이다. 둘째, 레이의 주장과는 달리, 치병의례의 발화는 오스틴이 제시한 수행문과 같다고 할 수 없다. 아프리카의 의례 언어들은 오스틴이 설명한 단순한 수행적 문장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오스틴에 따르면, 수행적으로 발화된 말은 수행되는 행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배의 진수식에서 “나는 이 배를 퀴 엘리자베스호라고 명명(命名)한다”고 말하는 경우, 이름을 짓는 행위가 수행된다(Austin 1962: 5). 반면 아프리카의 치병의례에서 의례 언어는 발화되는 내용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은템부와 송헤이 부족민들은 말들이 의례적 맥락에서 발화되어 성스러운 힘을 유발하고 이것이 치료를 수행한다고 믿는다.¹²⁾ 언어의 힘에만 의존하는 “수행적 발화”에서는 볼 수 없는

한 단계를 더 포함한다. 수행적 발화가 작용하여 다른 어떤 힘이 작용하고, 이 힘이 발화자가 기대하는 일을 수행하는 구조를 지닌 것이다.

한국 개신교의 성경읽기 의례에서 발화된 말은 두 개의 다른 구조로 작용한다는 면에서 아프리카의 치병의례에서 발화된 언어보다도 더 복잡하고 복잡적이다.¹²⁾ 한국 개신교의 성경읽기 의례 중 발화된 말의 내용이 기대하는 결과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아프리카의 의례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오스틴이 원래 의미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이다. 양자 모두, 말 자체가 지시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대신, 의례 참여자들은 성스러운 경전을 읽거나 주술적 효과가 있는 말을 함으로써 형성되는 환경이나 맥락이 발화되는 말에 수행적 특질을 부여한다고 본다. 말의 내용이 수행하는 행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도, 성스러운 언어가 종교의례를 통해 성현(聖顯)으로 경험됨으로써 초자연적인 결과가 발생한다고 믿는 것이다. 의례적 성경읽기에 참여하는 개신교인들은 성경의 신성한 말이 소리 내어 읽혀짐으로써, 즉 신성한 말이 발화됨으로써 그 효능이 발휘된다고 믿는다. 성경통독수련회의 광고문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

12) 한국 초기 개신교에서 치병의례에 사용된 말들이 수행되는 구조는 아프리카의 의례의 구조와는 대조적이다. 소위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목사나 전도사는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그에게서 떠나가라”고 소리쳤고, 그 말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제시되었다. 아프리카 전통종교의 경우와는 다르게, 발화된 말의 의미가 수행되는 의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13) 비교연구에서 차이점을 밝히는 일은 중요하다. 조나단 스미스는 비교연구가 유사성뿐만 아니라 차이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한다(J. Z. Smith 1990: 47). 위에 언급된 차이점들 외에도 주목할 만한 점들이 몇 가지 더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병을 치료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성경을 공부할 목적으로 발화된다. 병의 치료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적 체험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부수되는 현상이다. 수행문이 다른 형태를 통해 발화된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경회나 성경통독수련회에서는 기록된 경전을 읽는 것을 통해 발화가 이루어지나, 아프리카의 사례에서는 읽기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에, 다시 말해 읽히는 성경 즉 발화되는 말이 곧 신성한 존재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의 신성함이 읽는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의례적 배경이 말에 수행적 힘을 부여하는 구조는 위에서 설명한 발화된 내용과 결과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와 같다. 그러나 발화되는 내용이 수행되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 신성한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 의례 참여자는 말을 통해 생겨난 신성한 힘이, 말의 내용을 이룬 것이 아니라 참여자 자신이 원하는 효과를 실행했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발화의 내용과 상관 없이 발화를 통해 참여자가 기대하는 초자연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의례의 사례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이다. 이 현상을 종교학의 용어로 묘사하자면, 소리를 내어 성경을 읽는 의례를 통해 성현(聖顯)이 실현되며 초자연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는 읽혀지는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즉, 읽고 있는 내용이 치병과 관련이 없어도 병이 나올 수 있으며, 지혜를 얻는 것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도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다.

4. 결론과 제언: 연구범위와 문제의식의 확장

사경회는 지금까지 주로 개신교 내부의 관점에서, “성령의 도리를 가르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대부흥을 일으켰던” 초기 개신교의 의례로 기술되어왔으며(민경배 1993: 269),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조나단 스미스가 지적한 대로(J. Z. Smith 2004: 29), 사경회를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설명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를 개정(rectification)하는 작업은 비교종교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본 논문은 개신교회 내부의 연구자들처럼 한국의 사경회를 독특한 종교적 기적으로 간주하는 것에서 벗어나, 비교종교학의 관점에서 교회사학자들과 구별되는 설명을 제공하고 조나단 스미스가 말하는 ‘일반화’라는 비교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시도하였다.¹⁴⁾ 이를 위해, 사경회의 중심이었던 “성경읽기 의례”에서 읽기(발화)와

의례의 속성에 주목함으로써, 기독교적 독특성을 강조하는 것을 지양하고 일반적인 의례의 맥락에서 이론적인 설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역사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성경읽기 의례의 설명이 이루어졌다. 역사적인 측면의 설명은 사경회와 성경읽기 의례를 한국의 문화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살펴보는 작업이었다. 특히 한국인 평신도지도자들과 조사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한국어로 번역된 경전을 읽음으로써 한국인들이 개신교 전래 초기부터 공적인 의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나아가, 성경공부가 읽는 행위로 구성될 수 있었던 배경도 당시 한국의 상황과 연결하여 살펴보았다. 이 논문의 중심을 이루는 이론적인 면의 연구는 성경읽기 의례의 발화에 나타나는 두 가지 구조에 주목하였다. 먼저 한국 개신교의 종교의례적 성경읽기는 오스틴의 수행적 발화와 같은 의미에서 수행적이며, 따라서 비종교적인 언어의 수행적 발화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를 찾을 수 있다. 성경을 읽는 행위와 성경 자체의 의례화를 통해 오스틴이 규정한 수행적 언어를 위한 필요조건들이 충족되었다. 공개적인 의례의 맥락에서 경전읽기는 읽는 행위와 경전 자체가 의례화되었기 때문에 수행적 힘을 획득하게 된다. 라파포트가 밝힌 의례의 지시적인(indexical) 역할을 적용하여, 경전의 말들과 그것이 의례 참여자들에게 끼친 영향 사이의 관계를 조명할 수 있었다. 성경읽기 의례는 참여자들을 발화된 말들의 의도된 청중으로 지시하고,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로써 의례는 상징화된 의미를 실제화하여 소위 “부흥”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읽혀지거나 암송된 성경의 말들이 수행적으로 기능하여 신자들의 신앙을 강화하고 때로는 신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의례에 참여한 사람들이 개종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둘째로 오스틴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수행적 발화의 구조를 성경읽기 의례에서 찾을 수 있었다. 발화된 내용과 그것을 통한 결과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로, 의례 참여자들은 발화

14) “일반화는 선택되고 조정된 특징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에 주목하며 다른 특징들은 무시하는 지적(知的)인, 비교의, 분류의 행위로 이해된다”(J. Z. Smith 2004: 369).

된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 기대하는 내용이 발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이러한 의례의 경우도 발화를 통해 어떤 결과가 생겨난다고 믿는다는 면에서 수행적 발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발화된 말이 종교의례의 맥락에서 성스러운 힘의 작용을 유발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충족하도록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발화를 사용하는 의례 중 이와 유사한 사례를 아프리카의 치병의례에서 찾아보았다.

앞으로의 연구는 의례 언어의 수행적 힘과 관련된 적합한 비교의 대상을 여러 문화들에서 찾아내어 한국 개신교의 종교의례적 성경읽기에서 말과 행위가 연결되는 구조를 더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경전을 읽는 행위가 수행적 힘을 발휘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교의 사례들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Graham 1987 참조). 예를 들어, 한국의 성경읽기 의례에서 사용되는 수행적 발화의 구조를 고대 유대교 및 기독교 발생기의 경전읽기 의례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왓츠는 “히브리 성서(구약성경)에서 율법을 읽는 것에 대한 구절의 대부분은 전체 율법 문헌을 공개적으로 읽는 것을 묘사한다”고 주장한다(Watts 1999: 15).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뿐 아니라 요시아와 에스라 등이 여러 날 동안 율법 문헌을 대중들에게 읽어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에스라가 대중들에게 율법서를 읽어 주는 의례의 형태와 효과에 대한 주장은 한국 개신교 사경회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느헤미야 8: 5-9).

한국의 사경회와 마찬가지로, 인용된 부분에 나오는 의례의 중심은 경전을 읽는 것이었고 난해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곁들여졌다. 이 구절은 의례 참여자들이 낭독되는 경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강렬한 종교적 체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발화된 텍스트의 수행적 힘은 종교의례의 엄숙한 분위기에서 필요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고대 이스라엘의 경전읽기 의례의 전통은, 금속활자가 발명되고 성경이 각국어로 번역되면서 성경책이 집집마다 보급된 이후, 특히 근대 교육의 영향으로 문맹률이 낮아진 이후 서양 개신교 전통 내에서는 상당히 약화되었으나(Graham 1987: 124), 한국적 개신교라는 종교문화의 맥락과 만나 사경회와 성경통독수련회 등에서 다시금 강조된다. 더 다양한 문화의 많은 사례들을 검토하여 의례적 경전읽기의 발화가 수행적 힘을 발휘하게 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광수(1996), 「사경회, 한국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제4권, 서울: 기독교문사.
- 김인수(2002),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 I,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민경배(1993),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새문안교회출판부(1958), □□새문안교회70년사□□, 서울: 새문안교회.
- 이덕주(1995), □□초기 한국 기독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_____ (2001),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1989, 1990), □□한국기독교의 역사□□ I, II, 서울: 기독교문사.
- 《그리스도신문》(1898~1902), 서울.
- 《예수교회보》(1912~1914), 서울.
- 《기독신보》(1916~1918), 서울.
- 《한국장로신문》 사설 (2006. 3. 18), <「부흥사경회」와 ‘교회’>.
- Austin, J. L.(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ambridge: Harvard UP (reprinted 1975).
- Bell, C.(1992), *Ritual Theory, Ritual Practice*. Oxford: Oxford UP.
- _____ (1997), *Ritual: Perspectives and Dimensions*. Oxford: Oxford UP.
- Clark, A. D.(1930), *The Korean Church and the Nevius Methods*. New York: Fleming H. Revell.
- Eliade, M.(1957),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New York: Harcourt (reprinted 1987).
- Graham, W. A.(1987), *Beyond the Written Word: Oral Aspects of Scripture in the History of Religion*. Cambridge: Cambridge UP.
- Moffett, S. H.(1962), *The Christians of Korea*. New York: Friendship Press.
- Moore, J. Z.(1907), “The Great Revival Year”, in *The Korean Mission Field* (August).
- Moore, S. F.(1906), “The Revival in Seoul”, in *The Korean Mission Field* (April).
- Rappaport, R. A.(1999), *Ritual and Religion in the Making of Humanity*. Cambridge: Cambridge UP.

- Ray, B. C.(2000), "Discourse about Difference: Understanding African Ritual Language", in K. C. Patton and B. C. Ray (Eds.), *A Magic Still Dwells: Comparative Religion in the Postmodern Age* (101-116),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
- Smart, N.(2000), *World Views: Crosscultural Explorations of Human Beliefs*, 3rd ed. Upper Saddle River: Prentice-Hall.
- Smith, J. Z.(1990), *Drudgery Divine: On the Comparison of Early Christianities and the Religions of Late Antiqu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
- _____ (2004), *Relating Religion: Essays in the Study of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
- Smith, W. C.(1989), "The Study of Religion and the Study of the Bible", in M. Levering (Ed.), *Rethinking Scripture: Essay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18-28). Albany: SUNY Press.
- Turner, V.(1969),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 Watts, J. W.(1999), *Reading Law: The Rhetorical Shaping of the Pentateuc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 _____ (2006), "The Three Dimensions of Scriptures", in *Postscripts 2.2-3* (2006). London: Equinox Publishing.
- The Korea Mission Field (1905~1907)*, Seoul.

원고 접수일: 2008년 월 일

게재 결정일: 2008년 월 일

ABSTRACT

Performative Force of Public Scripture Reading in
Korean Protestantism
: Comparative Analysis of Religious Scripture Reading Ritual

Yohan Yoo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Public scripture reading rituals, such as the Bible study meeting of early Korean Protestantism and contemporary protestant retreats for reading through the Bible, should be analyzed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analysis provides a vivid illustration of the social function of the performative dimension of scriptures, but it also suggests the need to further define the meaning of “performative.” As to the first point, the particular ways in which the Bible was read in the Korean context contributed to the growing number of converts to Christianity. Most scholars agree that the Bible study meeting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rapid growth of the early Korean Protestantism. The Bible study meeting, of which central feature was public scripture reading, promoted a fourfold increase in church membership in Korea between 1903 and 1907. Bible readings in the context of study groups in early Korean Protestantism facilitated the absorption of Christianity into Korean culture by building on traditional religious practices and by offering a way for native Koreans to

take the lead in the growth of the new religion. Second, these scripture readings were performative in the way defined by J. L. Austin's theory of performative speech and elaborated by Roy Rappaport's description of the indexical function of ritual, because they affected Koreans' conversions into Christianity and strengthened their Christian faith. Austin's necessary conditions of performative utterances were satisfied through ritualization of the activity of reading and ritualization of the Bible itself.